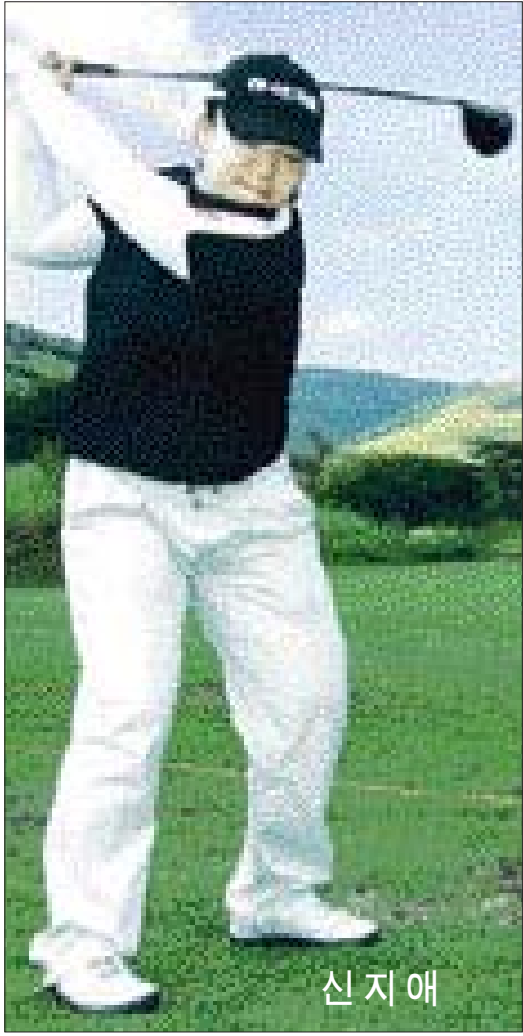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신지애

신지애 “오초아 천하 내가 끝낸다”

LPGA 15일 SBS 오픈 시작으로 10개월 대장정 총 33개 대회...‘코리안 파워’ 시즌 판도 변수될 듯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08년 시즌이 1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SBS오픈을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 LPGA 투어는 33개 대회에 5천81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 지난해보다 대회가 2개 늘었고 상금도 400만 달러 가량 증가했다.

올해 LPGA 투어의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오초아 1인 천하가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다. 지난해 오초아는 시즌 8승을 올려달라고 사상 첫 시즌 상금 400만 달러를 돌파한 선수가 됐다.

올해 27살이 되는 오초아는 노련미까지 더해져 당분간 1인자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소렌스탐, 웹, 박세리 재기도 관심거리

다. 한때 LPGA 투어 최다승(88승) 경신도 바라봤지만 69승에서 우승 행진이 멈춰버린 소렌스탐과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35승을 올린 웹, 그리고 메이저대회 5승에 24승을 이룬 박세리는 모두 현역 명예의 전당 멤버이다.

차례로 슬럼프에 빠져 들었다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그러나 아직도 정상급 기량을 갖고 있어 올해 오초아의 1인 천하에 도전할 유력한 후보들이다.

2008년 역시 LPGA 투어 판도는 ‘코리안 파워’의 활약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들이 가져간 우승컵은 고작 4개 뿐이었다. 올해 한국 선수들의 우승컵 작황은 작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과 10승이

상이 될 것이라는 낙관이 교차한다.

투어에 새로 뛰어든 박희영, 최나연, 지은희, 그리고 정규 멤버는 아니지만 7개 대회 가량 출전할 신지애(20·하이마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추락을 거듭했던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셀 위)는 올해 남자 대회 출전을 그만두고 LPGA 투어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15일부터 사흘 동안 하와이주 카후쿠의 티볼 베이골프장(파72·6천582야드)에서 치러지는 SBS오픈은 올해 판도를 가능할 전망이다.

오초아, 김미현, 박세리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5명이 빠져 전체 판도를 조망하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20위 이내 선수 13명이 출전한다. 우승 후보는 세계랭킹 2위 페테르센과 작년 챔피언 크리머, 그리고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세계랭킹이 높은 7위 신지애가 꼽힌다.

지난해 처음 출전해 공동40위에 그쳤던 신지애는 “한번 겪어본 코스는 완벽하게 기억한다”면서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 새 전신수영복 입을 박태환

“가볍고 아주 편해요

올림픽 금 꼭 따야죠”

“새 수영복이 몸에 딱 맞고 기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베이징올림픽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19·경기고)이 후원사인 수영용품 브랜드 스피도가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해 개발한 새 전신수영복을 입고 올림픽 금메달을 다잡겠다.

박태환은 12일 낮 일본 도쿄 오다이바 일본 과학미래관(닛폰가쿠미라이칸)에서 열린 스피도의 새 수영복 ‘레이저 레이스’ 출시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 수영복을 입고 아시아 대표 모델로 무대에 올랐다.<사진>

박음질 없어 몸에 붙고

물·피부 저항력 최소화

스피도의 새 수영복 출시 행사는 도쿄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에서 이날 동시에 열렸는데 뉴욕에서는 마이클 펠프스, 시드니는 그랜트 헵트, 런던은 영국 경영대표팀이 각각 대표 모델로 섰다.

새 수영복은 기존 ‘FS(Fast Skin) 프로’ 원단에 스피도가 미국우주항공연구소(NASA)와 함께 개발한 새 원단 ‘레이저 패넬’을 합해 만들어진 것. 스피도에 따르면 이 수영복은 물 및 피부 저항력을 극소화시킨 데다 옷 전체에 박음질이 없어 선수의 몸에 딱 달라붙는 효과가 있다.

박태환은 “매우 가볍다. 착용감도 아주 좋고 편하다. 특히 경기 도중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 부위를 수영복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다. 경기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자유형 400m에서 3분44초30으로 여는 선수보다 좋은 기록을 냈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이를 더 줄인다면 올림픽 금메달은 충분하다는게 수영계 안팎의 분석이다.

“더 강해지고 승수 올리고”

허정무호 東亞연맹컵 출사표

“축구 대표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승패도 반드시 쟁기겠다.”

2008 동아시아연맹(EAFF)컵(17~23일, 중국 충칭) 축구대회 출격을 눈앞에 둔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린 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허 감독은 13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12일 오전 광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국내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연맹컵 대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승패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다”고 밝혔다.

국내파 위주로 팀을 구성한 허 감독은 이어 “해외파 선수들에게 의존해서는 대표팀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면서 “국내파들이 2진이라 해도 함께 강해져야 대표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격 패턴에 대해서는 “박주영을 원톱으로 쓰기에는 상대 팀이 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로 합류한 고기우와 이근호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미숙한 점이 있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다. 다양한 공격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그러나 태극전사들의 불 처리 미숙과 골 결정력 부족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문전 처리 상황에서 불 처리가 미숙하고 골 결정력이 낮다. 그 이유가 있다. 문전에서 볼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많이 지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배구 예비대표 19명 확정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세계 예선전(5.17~25, 일본 도쿄)에 나갈 배구 여자 국가대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한배구협회는 12일 ‘거포’ 김연경(흥국생명)을 포함한 대표팀 예비 엔트리 19명을 확정했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김연경과 한유미(현대건설)-한송이(한국도로공사) 자매, 아킬레스건 부상을 딛고 맹활약을 하고 있는 임효숙(도로공사)이 레프트로 이름을 올렸다.

라이트에는 환연주(흥국생명)와 나혜원(GS칼텍스) 외에 신인 하준임(도로공사)이 포함됐다.

지난해 월드컵에 뛰었던 신인 거포 배유나(GS칼텍스)는 레프트와 라이트로 전천후 활약한다.

센터에는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던 정대영(GS칼텍스)과 KT&G의 ‘듀오’ 김세영, 지정희, 흥국생명의 전민정, 현대건설의 새내기 양효진이 후보 명단에 들었다.

대표팀은 프로배구 2007-2008 V-리그 종료 전에 최종 12명을 추린 뒤 플레이오프 탈락팀 선수들을 중심으로 태릉선수촌에서 먼저 체력훈련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제’ 우즈 빠진 세계 그린 ‘탱크’ 최경주 정상 노린다

내일 PGA 노던트러스트 오픈 개막

2008년 들어 세를 크게 벌인 한국남자골프 군단이 14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오픈에서 세계 강호들과 샷대결을 벌인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베라골프장(파71·7천279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작년까지 닛산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나 올해부터는 투자 매니저먼트 회사인 노던트러스트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면서 대회 이름 변경과 함께 총 상금 620만달러에 우승 상금 111만6천달러를 내 걸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하지는 않지만 세계랭킹 톱10에 드는 선수들과 메이저대회 우승자들이 대거 출전 신청서를 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를 비롯해 나상욱(24·코브라골프), 위장수(36·테일러메이드),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도 이 대회에 출전한다.

2001년부터 이 대회에 출전했던 최경주는 2003년 대회에서 공동 5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 최경주는 여전히 컴퓨터 아이언샷을 날리고 있지만 소니오픈 우승 이후 찾아온 퍼트 난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나상욱은 올 시즌 5개 대회에서 두차례 톱10에 오르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 앤서니 김은 작년이 대회에서 공동 9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시즌 3개 대회에서 모두 컷을 통과한 위장수는 이번이 처음 이 대회 출전이다. AT&T 페블리치 내셔널 프로암에서 생애 첫 톱10에 입상한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과 박진(31·던롭스릭슨)은 대기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 골프장 내장객 2천 234만여명

전남, 홀당 평균 내장객 4천642명 1위

지난 해 골프장 내장객 수가 연인원 2천20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 전국 골프장 277개소(회원제 175개소, 퍼블릭 10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장객 연인원은 2천234만3천79명으로 2006년(250개소) 대비 13.7% 늘어났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이 10.5% 늘어났는데 비해 퍼블릭 골프장 내장객은 2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회원제골프장의 경영지표인 홀당 평균 이용객은 3천751명으로 2006년 3천780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퍼블릭 골프장의 홀당 평균 이용객은 5천621명으로 2006년 5천222명에 비해 7.6% 성장했다.

2007년도 신규 승인 골프장도 회원제(23개소)에 비해 퍼블릭(27개)이 많아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원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과잉 공급으로 문제가 됐던 제주도(회원제 21개소, 퍼블릭 13개)는 홀당 평균 내장객이 회원제 2천380명으로 1위 전남(4천642명)에 비해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퍼블릭의 경우 3천797명으로 전국 시도(1위 경남 8천774명) 중 가장 적었다.



4대륙 피겨선수권 정상을 꿈꾸며 국제빙상경기연맹 주최 ‘2008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린 아이스댄스 부문 공식훈련에서 캐나다 엘리 한 맥커디와 미첼 코레노가 열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 코노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필리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관주	3,500	송심배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